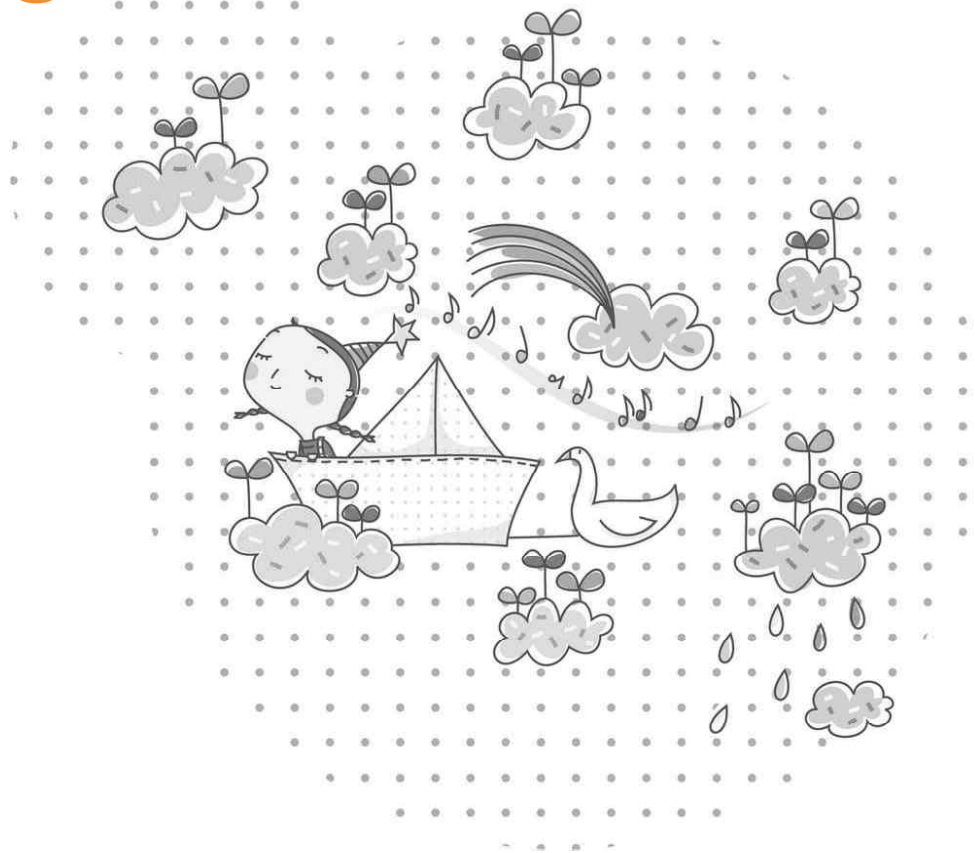


제16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은상*



작은 것의 소중함

송혁주 | 포항제철 자곡초등학교 2학년

“혁주야, 학교 잘 갔다 왔어?”

아빠의 첫인사는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 2년 전부터 아빠는 할머니 댁에서 농사를 도와주신다.

할머니 집은 작은 기와집인데, 아궁이에 불을 때는 곳이 있다. 방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작은 개미가 바닥으로 지나간다. 파리도 내 코를 간질거린다. 그래서 난 할머니집이 좋지 않다. 너무 오래되어 아빠께서 고치려 해도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 그것 말고도 할머니의 꺾을 수 없는 고집은 많다.

“가자, 밭에. 할머니 도와드려야지.”

오늘은 감자를 캐는 날이다. 할머니의 밭은 풀투성이다. 옆집 밭은 깨끗한데 말이다.

풀 사이를 헤치며 아빠가 감자줄기를 뽑으시면 나는 누나들과 함께 뒤를 따라가며 감자를 줍는다. 작은 감자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나온다.

“에이, 옆집 감자는 왕감자고 할머니 감자는 계속 아기감자야, 시시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

“크면 다 좋죠!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이 녀석아, 할머니는 널 위해 이런 감자를 키우시는 거야. 몰랐구나?”

내가 약하게 태어난 이후로 할머니께서는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비료도 없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처음에는 다른 밭에 있는 벌레도 많이 오고 다른 밭 할머니들이 우리 밭에 벌레가 많이 생겨서 옆으로 옮긴다고 싫어하시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밭이 풀투성이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책에서만 보던 무공해다. 그리고 오염된 땅을 되살리는 방법이라고 한다.

할머니 밭에서 나는 토마토, 고추, 상추, 가지 모두 울퉁불퉁 못생기고 썩은 것도 많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 좋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처음엔 할머니도 나를 위해서만 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예전에는 밭에서 볼 수 없었던 지렁이며 무당벌레도 많고 땅이 검고 축축하게 변해서 이제는 농사를 짓기가 쉽다고 하신다. 어디서 씨앗이 날아왔는지 할머니가 어렸을 적 먹었던 나물이라는 풀들도 올해부터는 밭 중간 중간에 자라기 시작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할머니는 올해 더 기뻐하신다.

“에이, 요놈의 지렁이! 다시 들어가!”

작은 감자 사이로 나타난 지렁이가 이젠 징그럽지 않다. 모기, 파리가 많은 할머니 집은 아직 좋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옆집 꼬마가 들고 온 왕 감자를 보면 조금 기가 죽는다. 하지만 나의 건강과 우리 밭을 지켜 주고 할머니의 옛날 기억을 되살려 준 작은 감자가 나에겐 더 소중하다.